

「문·간·지」

하

김형직 편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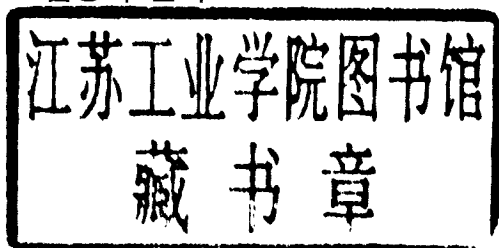
观止

业精于勤，荒于嬉；行成于思，毁于随。
方今圣贤相逢，治具毕张。
拔去凶邪，登崇俊良。
占小善者率以录，名一艺者无不庸。
爬罗剔抉，刮垢磨光。
盖有幸而获进，孰云多而不扬？
诸生业患不能精，无患有司之不明。
行患不能成，无患有司之不公。

고문관지 하

古文观止

김형직 편역



민족출판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古文观止. 下: 汉朝对照 / 金亨直编译. —2版(修订本).
—北京: 民族出版社, 2009.7
ISBN 978-7-105-10145-0

I. 古… II. 金… III. 古典散文—作品集—中国—汉、朝
IV. H194.1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108573号

责任编辑: 李兰兰

责任校对: 宋锦兰

封面设计: 李 峰

出版发行: 民族出版社

地 址: 北京市和平里北街14号 邮编 100013

网 址: <http://www.mzcbs.com>

印 刷: 北京佳顺印务有限公司印刷

经 销: 各地新华书店经销

版 次: 1999年5月第1版 2009年10月第2版 2009年10月北京第2次印刷

开 本: 787毫米×1092毫米 1/16 字数: 475千字

印 张: 31.5

定 价: 80.00元(上、下册)

ISBN 978-7-105-10145-0/H·703(朝67)

该书若有印装质量问题, 请与本社发行部联系退换

朝文室电话: 58130534; 发行部电话: 64211734

민족출판사 출판발행

(북경시 화평리북가 14호 우편번호 100013)

<http://www.mzcbs.com>

1999년 5월 제1판 2009년 10월 제2판 2009년 10월 북경 제2차 인쇄

절지: 787mm×1092mm 1/16 전지:31.5

자수: 475천자 값: 80.00원(상, 하)

ISBN 978-7-105-10145-0/H·703(조67)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편집실전화: 58130534; 발행부전화: 64211734)

차 례

열가지를 생각할것을 태종에게 간하는 주소	1
諫太宗十思疏	3
서경업의 무조토벌을 위한 격문	5
为徐敬业讨武曌檄	7
등왕각서	11
滕王閣序	14
한형주에게 보내는 편지	20
与韩荊州书	22
봄밤에 도리원연회에서	25
春夜宴桃李園序	26
옛 전쟁터에 드리는 조위문	27
吊古戰場文	30
루실명	34
陋室銘	34
아방궁부	36
阿房宮賦	38
원도	40
原道	45
원훼	49
原毀	51
획린해	53
获麟解	54
잡설 1	55

杂说一	55
잡설 4	57
杂说四	58
사설	59
师说	61
진학해	63
进学解	66
미장 왕승복전	70
圻者王承福传	72
회변	75
讳辩	77
쟁신론	80
争臣论	84
19일 후 다시 재상에게 올리는 서신	88
后十九日复上宰相书	90
29일 후 다시 재상에게 올리는 서신	92
后廿九日复上宰相书	95
우양양에게 보내는 편지	98
与于襄阳书	100
진급사에게 보내는 편지	102
与陈给事书	103
과거에 응시하면서 위사인에게 드리는 편지	105
应科目时与人书	106
맹동야를 떠나보내며	108
送孟东野序	110
반곡으로 가는 리원을 떠나보내며	114
送李愿归盘谷序	116
동소남을 떠나보내며	119
送董邵南序	120

양소윤을 떠나보내며	122
送杨少尹序	123
석처사를 떠나보내며	126
送石处士序	128
하양군으로 부임하는 온처사를 떠나보내며	130
送温处士赴河阳军序	131
12랑을 애도하는 제문	133
祭十二郎文	137
악어제문	140
祭鳄鱼文	142
류자후묘지명	144
柳子厚墓志铭	148
《복수의》를 론박하다	152
驳《复仇议》	155
오동잎으로 동생을 봉한데 대하여	158
桐叶封弟辨	159
기자비	161
箕子碑	163
뱀잡이군의 이야기	165
捕蛇者说	167
나무 심는 곽탁타	169
种树郭橐驼传	171
재인전	173
梓人传	177
우계시서문	181
愚溪诗序	183
영주 위사군 신택기	185
永州韦使君新堂记	187
고무담서쪽의 작은 언덕	189

钴姆潭西小丘记	190
소석성산기	192
小石城山记	193
진사 왕참원의 집에 불이 난것을 축하하는 편지	194
贺进士王参元失火书	196
대루원기	199
待漏院记	201
황강죽루기	204
黄冈竹楼记	205
《락양명원기》 뒤글	208
书《洛阳名园记》后	209
엄선생사당기	211
严先生祠堂记	212
악양루기	214
岳阳楼记	215
간원 제명기	217
谏院题名记	218
의전기	219
义田记	221
원주 주학기	224
袁州州学记	226
붕당론	228
朋党论	230
죄수석방을 론함	233
纵囚论	235
비연대사시집서문	237
释秘演诗集序	239
매성유시집서문	241
梅圣俞诗集序	243

양치를 떠나보내며	245
送杨真序	246
5대사 령인전서문	248
五代史伶官传序	249
5대사 환자전론	251
五代史宦者传论	252
상주 주금당기	254
相州昼锦堂记	256
풍락정기	259
丰乐亭记	260
취옹정기	263
醉翁亭记	264
추성부	266
秋声赋	268
석만경제문	270
祭石曼卿文	271
상강묘표	273
洮冈阡表	277
관중론	281
管仲论	283
변간론	287
辨奸论	289
마음속 술법	291
心术	293
장익주 화상기	296
张益州画像记	299
상벌에서 지극히 충후할데 대하여 논함	302
刑赏忠厚之至论	304
범증론	306

范增论	308
류후론	311
留侯论	313
가의론	316
贾谊论	318
조착론	321
晁错论	323
매직강에게 올리는 글	325
上梅直讲书	327
희우정기	329
喜雨亭记	331
릉허대기	333
凌虚台记	334
초연대기	336
超然台记	338
방학정기	340
放鹤亭记	342
석종산기	344
石钟山记	346
조주 한문공묘비	348
潮州韩文公庙碑	351
륙지의 주소를 교정하여 올리는 차자	355
乞校正陆贽奏议进御札子	357
전적벽부	359
前赤壁赋	361
후적벽부	364
后赤壁赋	365
삼괴당명	368
三槐堂铭	370

방산자전	373
方山子传	374
6국론	376
六国论	378
추밀 한태위께 올리는 편지	380
上枢密韩太尉书	382
황주 쾌재정기	384
黄州快哉亭	385
구양사인에게 부치는 편지	388
寄欧阳舍人书	391
려생과 안생에게 주는 글	394
贈黎安二生序	395
맹상군전을 읽고서	397
读孟尝君传	397
《동학》 한편을 써서 자고와 작별하다	399
同学一首别子固	400
포선산유람기	402
游褒禅山记	404
태주 해릉현 주부 허선생묘지명	406
泰州海陵县主簿许君墓志铭	407
천대의 진정학을 떠나보내며	409
送天台陈庭学序	410
열강루기	413
阅江楼记	415
사마계주가 점을 론하다	418
司马季主论卜	419
감자 파는 사람의 말	421
卖柑者言	422
심려론	424

深虑论	426
예양론	428
豫让论	430
친정편	433
亲政篇	436
존경각기	439
尊经阁记	442
상사당기	445
象祠记	447
예려문	450
瘞旅文	452
신릉군이 조나라를 구한 일을 논함	455
信陵君救赵论	458
류일장씨께 올리는 답서	462
报刘一丈书	464
《오산도》기	466
《吴山图》记	467
창랑정기	469
沧浪亭记	470
《청하선생문집》 서문	472
《青霞先生文集》序	474
린상여가 화씨벽을 그대로 조나라에 돌려온 일을 논함	477
蔺相如完璧归赵论	479
서문장전	481
徐文长传	484
5인묘비기	487
五人墓碑记	489

열가지를 생각할것을 태종에게 간하는 주소

위 징

신이 듣건대 나무를 잘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그 뿌리를 굳게 묻어야 하고 강물을 멀리 흐르게 하려면 반드시 그 원천을 깊이 파야 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면 반드시 덕을 쌓아야 한다 하옵니다.

원천이 깊지 못한데도 멀리 흐르기를 바라고 뿌리가 굳게 묻히지 못하였는데 잘 자라기를 바라며 덕이 두텁지 못하면서도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라는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로서 저로서도 그것이 불가한줄 알고있거늘 하물며 명철하신 임금님이시겠나이까? 임금님은 제왕의 중책을 지니시었고 천하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므로 안일하다고 위태함을 생각지 않으시고 사치를 경계하고 절검을 행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것은 역시 뿌리를 짚어놓고 나무가 무성하기를 바라는것이요 원천을 막고 강물이 멀리 흐르기를 바라는것이옵니다.

무릇 옛날의 군주들은 다 하늘의 대명을 받고 시작을 잘한 사람은 실로 많으나 끝을 잘 마친 사람은 대개 적었사옵니다. 무엇때문에 천하를 얻기는 쉬워도 천하를 지키기는 어렵겠습니까? 대개 우환속에서 창업할 때는 반드시 성의를 다하여 아래사람을 대하고 일단 뜻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방종해져 오만하게 남을 대하기때문이오이다. 성의를 다하여 사람을 대하면 오나라와 월나라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오만하게 남을 대하면 골육도 길가는 사람같이 될수 있사옵

니다. 이렇게 되면 엄혹한 형벌로 동독하고 위엄있는 권세로 진압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립시 형벌이나 면하려 할뿐 임금의 은혜를 그리지 않을것이며 겉으로는 공경하는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종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원한이 큰것은 아니지만 오직 백성이 무섭사옵니다. 백성은 물과 같아 배를 실을수도 있고 배를 뒤엎을수도 있으므로 마땅히 심히 삼가하여야 할줄로 아옵니다.

진실로 즐기는것을 보았을 때는 그만하면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경계하여야 하고 궁궐을 지으려 할 때에는 맞추히 하고 그만 뒤야겠다고 생각하고 백성을 안정시켜야 하며 벼슬이 높아 위태함이 넘려될 때에는 겸손하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단속하여야 하고 차넘치는것이 두려울 때에는 강과 바다가 여러 갈래의 내물의 아래에 있는것을 생각하여야 하며 유락하고싶을 때에는 임금은 일년에 사냥을 세번만 할수 있다는 한도를 생각하여야 하고 해태해질가봐 걱정될 때에는 시작을 잘하고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며 막히고 가리워질가봐 근심될 때에는 허심하게 아래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참소가 두려울 때에는 몸을 바르게 하여 사악한자를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며 은혜를 베풀 때에는 기쁨으로 인해 상을 잘못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고 벌을 줄 때에는 노여움으로 인해 형벌이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여야 하옵니다. 이 열가지를 다 행하고 아홉가지 덕을 넓혀가며 현능한 사람을 구하여 등용하고 착한 말을 택하여 따르면 슬기로운자가 그의 계책을 다 바치고 용맹한자가 그의 힘을 다바치며 어진자가 그의 미덕을 다 펴고 성실한자가 그의 충성을 다하게 되오리다. 문무를 겸용하면 소매를 드리우고 손을 맞잡고있어도 천하가 저절로 다스려지거늘 하필 정신을 수고시키고 마음을 괴롭혀가며 백관의 직임을 대신 행할게 무엇이오니까?

諫太宗十思疏

魏 徵

臣聞求木之長者，必固其根本；欲流之遠者，必浚其泉源¹⁾；思國之安者，必積其德義。源不深而望流之遠，根不固而求木之長，德不厚而思國之安，臣雖下愚，知其不可，而況於明哲乎？人君當神器之重²⁾，居域中之大³⁾，不念居安思危，戒奢以儉，斯亦伐根以求木茂，塞源而欲流長也。

凡昔元首⁴⁾，承天景命⁵⁾，善始者實繁，克終者蓋寡⁶⁾。豈取之易，守之難乎？蓋在殷憂⁷⁾，必竭誠以待下，既得志，則縱情以傲物⁸⁾。竭誠，則吳、越為一體⁹⁾；傲物，則骨肉為行路¹⁰⁾。雖董之以嚴刑¹¹⁾，振之以威怒¹²⁾，終苟免而不懷仁，貌恭而不心服。怨不在

1) 浚: 깊이 파다.

2) 神器: 왕위.

3) 域中: 천지간.

4) 元首: 임금.

5) 景: 크다.

6) 克: 능히 하다.

7) 殷憂: 우환.

8) 物: 사물, 즉 사람과 일.

9) 吳越: 춘추시대의 원수간이었던 오나라와 월나라.

10) 行路: 길가는 사람. 지나가는 낯모를 사람.

11) 董: 동독하다.

12) 振: “震”. 진압하다.

大, 可畏惟人¹³⁾。载舟覆舟¹⁴⁾, 所宜深慎。

诚能见可欲, 则思知足以自戒; 将有作¹⁵⁾, 则思知止以安人; 念高危, 则思谦冲而自牧¹⁶⁾; 惧满盈¹⁷⁾, 则思江海下百川; 乐盘游¹⁸⁾, 则思三驱以为度¹⁹⁾; 忧懈怠, 则思慎始而敬终²⁰⁾; 虑壅蔽²¹⁾, 则思虚心以纳下; 惧谗邪, 则思正身以黜恶²²⁾; 恩所加, 则思无因喜以谬赏; 罚所及, 则思无以怒而滥刑。总此十思, 宏兹九得²³⁾。简能而任之²⁴⁾, 择善而从之, 则智者尽其谋, 勇者竭其力, 仁者播其惠, 信者效其忠²⁵⁾。文武并用, 垂拱而治²⁶⁾。何必劳神苦思, 代百司之职役哉²⁷⁾ ?

13) 人: 당태종 리세민의 이름에 있는 “민”자를 피휘하느라고 “민”자 대신 “인”자를 쓴것이다.

14) 载舟覆舟: 물과 배의 관계로 백성과 통치자의 관계를 비유하여 한 말이다.

15) 作: 건축하다.

16) 冲: 화하다.

17) 满盈: 차넘치다.

18) 盘游: 노닐며 즐기다.

19) 三驱: 사냥을 하자면 짐승을 쫓아야 하기때문에 일년에 세번 사냥한다는 말을 이렇게 한것이다.

20) 敬: 삼가하다.

21) 壅: 막히다. 蔽: 가리우다.

22) 黜: 배척하다.

23) 宏: 넓다. 九得: 9덕(九德).

24) 简: 고르다.

25) 信: 성실하다.

26) 垂拱: 옷소매를 드리우고 손을 맞잡고 가만히 있다는 뜻.

27) 百司: 백관.

서경업의 무조도벌을 위한 격문

락빈왕

참람하게 제위를 찬탈한 무씨는 성정이 화순치 못하고 문벌이 실로 한미하다. 전에 그는 태종의 재인으로 있다가 임금의 시중을 드는 기회를 빌어 궁중에 들어가 임금을 모시기 시작하였다. 나이가 많아지자 태자궁을 어지럽히었다. 그는 선제와 사통한 일을 감추고 몰래 후궁의 사람을 도모하려 하였다. 입궐한 빈비들은 다 그의 질투를 받았으며 그는 자기의 미모를 믿고 임금의 총애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그는 소매로 코를 가리는 계책을 써 참소를 잘 올리었으며 여우같이 아양을 떨어 임금을 미혹하였고 끝내 왕후의 자리에 올라 우리 임금님이 인륜을 어기게 만들었다. 게다가 마음씨가 독사 같고 성정이 승냥이같아 간사한 무리를 가까이하고 충량을 해치었으며 자매를 살해하고 형제를 죽이었으며 임금을 시해하고 모친을 짐살하였다. 그리하여 사람들과 신령이 다 그를 미워하고 하늘과 땅이 다 그를 용납치 않았다. 더구나 그는 또 나쁜 심보를 품고 제위를 찬탈하려 엿보고있으며 임금의 사랑하는 아들을 별궁에 가두어놓고 무씨 집안 종친들에게 중임을 맡기었다. 오호! 괘자매이 펼쳐일어나지 못하고 주허후도 차취를 감추었다. 제비가 황손을 쪼으니 한나라가 망할것이요 룡의 침방울이 왕후로 되니 서주가 쇠퇴해지리라는 것을 알리로다.

경업은 대당(大唐)의 옛신하요, 공후의 장자로서 선인의 공업을 이어받고 지금 조정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다. 송미자가 비탄한데는 실로 까닭이 있거늘 환군산이 눈물을 흘린것이 어찌 연고가 없겠는